

조선통신사의 발자취를 찾아... 시즈오카에서 열린 「길 위의 인문학」

- 한일문화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가 다녀간 시즈오카현 세이켄지 역사탐방
-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통신사 기록물 견학

주일한국문화원(원장 공형식, 이하 문화원)은 일본 속에 한국과 인연이 있는 장소에 대해 강연과 답사를 통해 배우며, 양국 간 오랜 교류의 역사를 재발견하는 현장탐방형식 강연회 ‘길 위의 인문학’을 6월 22일(토)에 일본 시즈오카현에서 개최했다.

이번 답사지로 선정된 시즈오카 세이켄지는 1,300년이라는 오래된 역사를 가진 사찰로 조선통신사가 실제로 머물면서 남긴 양국 문화교류의 흔적이 담긴 유물이 201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통신사 기록물 333점 중 48점

현장탐방은 시즈오카현에서 문화재 보호연구를 전문으로 해온 향토사학자와타나베 야스히로의 ▲조선통신사 강연과 사찰 내 견학과 함께 유네스코 등재유산이 보관되어 있는 ▲세이켄지 수장고 견학 순으로 진행,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와 그림, 필담자료 등을 통해 임진왜란 이후 관계가 냉각된 당시 사람들의 상황과 함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교류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면서 쌍방향문화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탐방 후반, 이치조 주지스님의 강연에서는 조선통신사가 남긴 사찰입구의 현판 ‘경오세계瓊瑤世界’ (양국이 두 개의 구슬처럼 세상을 밝히라)의 의미와 불교의 가르침 중 하나인 ‘오유지족攄唯知足’ (자신에 대해 만족하라)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한일우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다.

문화원 공형식 원장은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한일문화교류의 상징인 조선통신사와 우호교류의 역사를 알리기 위해 답사지로 세이켄지를 선정, 48명 모집에 541명이 신청할 정도로 큰 관심과 기대를 받았다. 조선통신사와 당시 교류했던 일본사람들이 남긴 발자취를 통해 한일우호의 마음이 꼭 이어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붙임 1

행사 개요

- 행사목적
 - 문화유적지를 통한 양국 우호교류의 재발견
- 행사시기/장소 : 2024. 6.22.(토) / 시즈오카현 세이켄지
- 주최: 주일한국문화원
- 협력: 시즈오카현
- 참가인원: 48명 (신청자: 541명)
- 주요일정

시간	내용	참고
10:00~10:30	참가자 집합, 버스탑승	주일한국문화원 집합
10:30~14:00	세이켄지로 이동	
14:10~15:30	세이켄지 견학	환영인사 : 이치조 주지스님 강사 : 와타나베 야스히로
15:40~16:10	미호노마쓰바라에 이동	
16:10~17:00	미호노마쓰바라 견학	강사 : 와타나베 야스히로
17:00~	도쿄로 이동 (도중JR시미즈역 정차)	JR시미즈역 현지해산(희망자)
20:20~	한국문화원 도착 후, 해산	

담당 부서	주일한국문화원	책임자	원장 공형식 (+81)3-3357-5970
메일	pr@koreanculture.jp	담당자	민병욱(행사담당) / 조은경(홍보담당)